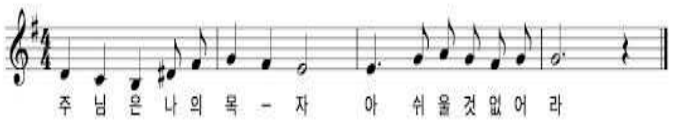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 무 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미사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성사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신심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사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신심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성사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신심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성사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예비자 교리	통신교리 - 전화문의
신심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지속적인 성체조배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예비자 교리	통신교리 - 전화문의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예비자 교리	통신교리 - 전화문의

[제 1독서] 에제34,11-12.15-17
[화 답 송] 시편23(22),1-2ㄱ.2ㄴ-3.5.6(◎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1코린15,20-26.28
[복음 환호송] 마르11,9.10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마태25,31-46

성가	8시 미사	입당 73	봉헌 41 54	성체 165 498	파견 78
	11시 미사	입당 73	봉헌 41 54	성체 165 498	파견 78

주일 전례 봉사

구 분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 23일)		대림 제 1주일(11월 30일)		대림 제 2주일(12월 7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1 구역	이바오로(명국)	2 구역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최다니엘(대연)	이바오로(명국)	1 구역	강요한(신호)	2 구역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김엘플레다(수연)	정스텔라(애리)	1 구역	김안젤라(영선)	2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권력과 사랑

지난 8월, 교황님 방한 때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한 젊은이가 교황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 한국사회는 재물과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런 상황에 우리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질로 일궈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물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복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사랑 얘기? 좀 막연하고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왠지 그날의 '사랑의 얘기'는 여느 때와 다르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의 충분한 '사랑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결핍된 사랑을 대신 채워줄 보충물로 찾는 것이 주로 '권력'입니다.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우위에 세워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되도록 권력의 크기를 최대한 부풀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그에 비해 어떤 이들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려는 듯, 권력 없이도 행복해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맘껏 누리기도 합니다.

권력 없이도 행복해하는 사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결핍을 서로 채워줍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상대를 희생시킬 필요도 없고, 간단히 말해 '권력'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자들의 횡포를 경험했던 탓인지, 저희 세대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전제주의 냄새를 풍기는 이 '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 왕권국가도 아니고, '민'(民)이 '주인'(主)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그것도 우리 삶의 모델인 예수님께 전제주의 냄새가 풍기는 '그리스도 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으냐는 편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과 트라우마도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권력과 사랑', 즉 '권력의 왕'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오래전 책이긴 합니다만, 신영복 선생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짜 모습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 무거운 청동 구리 옷을 입고 오가는 자동차를 내려다보면서 인왕산 청와대 수문장 노릇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충무공의 모습이 아니라, 저 남해 한산섬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왜군과 싸울 전략을 짜느라 고민하던, 백의종군하던 모습이 진짜 충무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성전 안에 모셔진 성상이나 그 위에 금박으로 치장되고 금관을 쓴 화려한 왕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갈릴래아 호숫가나 혹은 먼지 나는 들판을 헤매고 다니며 가난한 민초들을 찾던 '사랑과 연민의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명찬 신부
서울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 또는 자신의 품위와 권위를 들어 높일 수 있는 것에 눈길을 고정하며 살아간다.

모든 관심사의 주된 기준은 내 행동을 대입했을 때 보다 많은 이익으로 되돌아올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진 성과물이 크고 작음의 차이로 감격해 하고 뿌듯해 하는 사람과, 반대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그리곤 말한다. 성과물이 적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그저 패배자이며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담금질해야 한다고 충동질한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은 세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한다. 핵심은 단 하나. 보잘 것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

비록 왕으로 오셨지만 세속의 왕다운 권위와 권세엔 무관심하셨고, 오히려 가장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당신의 삶의 동반자로 여기셨던 예수님, 그분의 관심사는 언제나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조건과 그에 걸맞은 심판은,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평범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소외되고, 비인간적인 처지에 몰린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함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악인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윤리·도덕적인가 아닌가, 더 많이 가졌는가, 덜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에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한다.

그로써 다가올 심판 날에 내가 왼편에 설지 오른편에 설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례력으로 한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고 있다.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 하나 추스르고 살기도 버겁지만, 나 자신과 가족, 물질의 풍요로만 향했던 관심사를 이제는 바깥 이웃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거기에 의인이 가는 길,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 보일 것이다.

김성휘 요셉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모든 눈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신 그분을 볼 것입니다.

글_요한 묵시록 1, 7-8 참조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말씀의 향기

판단보류의 영성

너는 네 말만 하고 / 나는 내 말만 하고
같은 장소 / 같은 시간에 / 대화를 시작해도
소통이 안되는 벽을 느낄 때
꼭 나누고 싶어서 / 어떤 감동적인 이야길
옆 사람에게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나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것도 못 참느냐는 눈길로 / 나를 무심히 바라볼 때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며 / 화해의 악수를 청해도
지금은 아니라면서 / 악수를 거절할 때
누군가 나를 험담한 말이 / 돌고 돌아서 /
나에게 도착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외롭다 / 쓸쓸하고 쓸쓸해서
하늘만 본다
- 이해인의 시 <내가 외로울 땐> -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많이 결심하는 것 중에는 남을 함부로 속단하지 않기,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남에게 전하지 않기, 남을 흉보거나 뒷담화하는 일에 끼어들지 않기가 꼭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한 수녀님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도 거들었다가 잠시 후에 바로 뒷담화의 당사자를 만나니 그가 들은 것도 아닌데 어찌나 맘이 불편하고 켕기던지 하루 종일 쓰디쓴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을 모질게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쉽게 퍼뜨리면서도 큰 잘못이란 의식 없이 살고 있는지요.

오래전 비교종교학을 공부할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타종교를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판단보류의 영성'에 대해 배우며 깊이 공감했고, 이것은 나의 수도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났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들어왔던 온갖 말들(악플을 포함해)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중에는 내가 실수하거나 원인제공을 한 것도 있으나, 어느 땐 정말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소문이 사실처럼 돌아다녀, 일일이 변명도 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성소의 위기까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뒷담화는 우리를 더욱 외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 알게 된다면 과연 친구가 몇 명이나 남게 될지 의심스럽다는 책의 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내가 다른 이의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입고 힘들었듯이, 나 또한 많은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괴롭고 외롭게 한 날들이 부끄러워 참회의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이요 임금으로 선택하고 모시는 그리스도 왕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의 등 뒤에서 그들에 대해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그들에게 터놓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끝에 나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함부로 다른 이를 험담하는 악습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판단의 말은 보류하되 사랑의 행동은 빨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해인 수녀 ·시인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과 유다 서간

신분을 뛰어넘는 형제애 그리고 전해 받은 믿음의 수호

필레몬서는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짧은 편지로,(필레 1; 9; 10; 13; 23) 수신인인 필레몬은 바오로 사도의 인도로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였습니다.(필레 1; 9)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필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친 오네시모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스는 바오로 사도에 의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뒤,(필레 10) 사도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필레 12; 16)

사도가 그를 "내 심장과 같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계속 곁에 두며 협력자로 삼고도 싶었지만 옛 주인인 필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스를 한 형제로서 그리고 사도 자신을 맞아들이듯 맞아주기 바란다는 뜻을 표합니다.(필레 17)

필레몬서는 1코린 7,20-24; 콜로 3,22-4,1와 함께 노예제에 대한 바오로의 시각을 잘 드러냅니다. 사도에게 사회적, 법적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종에게는 종의 신분에 충실할 것을, 주인에게는 종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필레몬서에서도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라는 뜻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위와 신분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한 형제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필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스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맞아 주기를 기대합니다.(필레 16)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으며 노예의 생명 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음을 감안할 때, 노예를 형제로 대하라는 사도의 말은 파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유다서는 보편적인 독자를 향한 편지라는 의미로 교부들이 가톨릭 서한이라 부른 일곱 편지(유다, 야고보, 1 2베드로,1 2 3요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들을 자기네보다 앞선 시대에 속한 이들로 표현하고,(유다 17-18) '믿음'을 전해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유다 3) 점에서 이 편지는 2세기의 교회 상황을 반영합니다.

편지 저자는 교회 안에 숨어든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면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해 싸울 것을 권고합니다. '불경한 자들'이라 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저자의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론적 측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 측면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것입니다.(유다 4)

이들이 교회 바깥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숨어든 사람, 곧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유다 12)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자는 이들에 맞서 사도들에게서 전해 받은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고(20)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독려합니다.(유다 21)

송혜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밸리 한인천주교회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1월23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	김안젤라(영선)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박세레나(동신)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유요셉(일왕)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발바라수녀님	김데레사
	연	이스테파노(상준)	정카타리나(상은)
	연	김루카(동환) 기일	이베로니카(경란)
	연	김안드레아(상선)	김가를로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정
	연	한다윗(홍석)/부모님	한수산나(서연)
	연	황데레사(미대자)	김안젤라(영선)
	연	모든연령들	하늘의문
	연	모든연령들	상지의옥좌
	연	연옥영혼	루르드의모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김순이	김안젤라(영선)
	연	부모님	박시몬
	연	양가부모님	황안나
	연	최복동	원프란치스코
	연	한수희	이베로니카
	연	정종실	이베로니카
	생	본당신부님	김가를로가족
	생	본당신부님	송아가다
	생	이안드레아신부님	김데레사
	생	본당신자분들	김가를로가족
	생	허힐다(희나)	찬미성가대
	생	이아가다(윤자)	익명
	생	송미카엘(인근)	송아가다
	생	송프란치스코(성근)	송아가다
	생	강그레이스생일	황데레사
	생	김양월	이레이몬드(창용)
11월25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11월26일 수	연	세상을떠난안나회원	안나회
	연	김안드레아(상선)	박헬레나
11월29일 토	생	권카타리나	자녀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96	187	22	305
헌 금	$544	$1,268	$17	$1,829

< 교무금 > $3,570

권영현(11-12) 조기상(1-12) 정창희(11) 정일양(11)
정병구(11-12) 정지문(11-12) 팽현팔(11-12)
조병국(11) 이상용(9-12) 최대연(12) 이홍구(11-12)
김현수(10-11) 고영남(7-12) 이순자(11-12)
김용식(11-12) 최상철(10-11) 최윤기(11)
박진영(9-12)

< 성소후원금 > $120

정창희(11) 정병구(11-12) 조병국(11) 최윤기(11)
이상용(9-12) 김용식(11-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은 강수영 루시아 가정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항 -

◈ 미사 시간 변경 안내
11월 27일(목) 미사가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미사 후 Thanksgiving Day 친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 510-292-5815

◈ 2차 헌금 안내
11월 23일(오늘)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12월 7일 : Religious Retirement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성탄 판공성사
다음 주일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9일(금)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당일 아침미사 없습니다.)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일)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구역반장회의 : 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14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구역모임 고린도후서 1-2장		
2 구역	11월23일(일) 6시	배젬마 댁
7-1구역	11월22일(토)12시반	파운더스룸
7-2구역	11월23일(일) 2시	정태준 안토니오 댁
9 구역	11월29일(토) 6시	설승진토마스아퀴나스댁
10 구역	11월23일(일)미사후	대건회관

◈ 요아킴회/안나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12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행사 :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
점심식사, 가곡 독창/피아노 연주 및 국악마당
* 회원 모든 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기대합니다.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0일 ~ 2015년 2월 6일
문의 : http://ci.catholic.ac.kr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일시 : 매월 첫째와 세 번째 토요일 10시
문의 : 510-580-7880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한국학교 소식

- 11월 29일 : Thanksgiving Day 휴강
- 12월 6일 : 방학식/양로원 방문(Dimond Care)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